

지하명승 - 룡문대굴

평안북도 구장군에 있는 룡문대굴은 지하의 명승으로 널리 알려져있다.

룡문대굴은 오랜세월 땅속의 석회암층에 대한 지하수의 용해, 용식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천태만상의 만물상을 보여주는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희귀한 천연동굴이다.

룡문대굴은 지금으로부터 4 억 8 000 만년전에 이루어진것으로 알려져있다.

룡문대굴은 2 개의 원가지굴과 30 여개의 가지굴, 20 여개의 명소로 이루어져있다.

룡문대굴은 조선에서 제일 긴 자연굴이다. 또한 각이한 모양의 동굴을 종합한 특성을 가지고있다.

동굴안에는 삼천리금수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지하에 옮겨놓은듯한 천변만화한 자연조화가 끝없이 펼쳐져있다.

돌순을 위주로 한 곳, 각이한 돌꽃을 위주로 한 곳, 지상풍경을 방불케 하는 곳, 땅모양을 이룬 곳 등 굴들이 다양한것이 특징이다.

특히 광명동의 《련꽃무늬돌순》, 금강궁의 《금강폭포》(높이 30m 의 수직폭포) 등은 세계적인것이다.

룡문대굴은 조선에서 제일 길고 넓은 아름다운 회바위굴로서 관광 및 학술적가치가 대단히 크다.

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명소마다 훌륭한 조명설비를 갖춘 룡문대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있으며 인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지하명승지, 인민의 명승지로,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졌다.